특별선교주일



예배로의 부름 및 기도

연합감리교구호주일

본 예배 자료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의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예배 준비를 돕기 위해, **성서일과표의 수태고지 본문(2026년 3월 25일)인, 이사야 7:10-14, 시편 40:5-10, 히브리서 10:4-10, 누가복음 1:26-38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꾸러미의 다른 자료들과 함께 각 교회 및 예배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무거운 짐과 두려움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다 함께: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옵니다.

인도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속의 빛으로,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폭풍 속에 참여하는 이들로 부르십니다.

다 함께: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 함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목회 기도

은혜로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기쁨의 때에도 시련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 산악 지역에서 허리케인 헬렌의 피해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구호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옵소서.

또한 안전한 곳을 찾아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환대와 정의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서 재난과 추방, 절망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신실한 주의 종들의 손을 통해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구호위원회의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여 우리의 삶이 소망과 치유와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기도

풍성함과 자비의 하나님,

생명과 호흡, 공동체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구호주일을 맞아,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사명과 사역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 섬기는 이웃들과 이 사역을 지속하게 하는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시어,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의 임재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성자: 네이튼 알레리지 목사, 서노스캐롤라이나연회 장로 목사